

## 2017 대학입시거부선언

# 나를 위한, 모두를 위한 대학입시거부선언

2017. 11. 23. 목요일.

**대학입시거부로 삶을 바꾸는 투명가방끈**

카페: [hiddenbag.net](http://hiddenbag.net) | 메일: [hiddenbag@gmail.com](mailto:hiddenbag@gmail.com) | 페이스북: [facebook.com/hiddenbag](https://facebook.com/hiddenbag)

언론 담당자:

(따이루)

## 〈2017 대학입시거부선언〉 11월23일 활동일정

<b>기자회견</b>	시간   11:30 ~ 12:00 장소   서울 청계광장
1. 기자회견 안내	사회자   난다(투명가방끈 운영회원)
2. 2017 대학입시거부 선언자 발언	
3. [퍼포먼스] 우리를 불안으로 내모는 뺑들을 날려버리자!	2017 대학입시거부선언자
4. 2017 대학입시거부 공동선언문 낭독	
<b>선언자 모임</b>	시간   12:30 ~ 15:00 장소   노들장애인야학
<b>거리행동</b>	시간   15:00 ~ 17:00 장소   서울 마로니에공원
대학입시거부 선언자 릴레이 발언	2011~2017 대학입시거부선언자
2017 대학입시거부 공동선언문 및 개인기고글 전시	2017 대학입시거부선언자
대학입시거부 선언 지지 메시지 적기	시민 참여활동

## 보도자료 순서

대학입시거부로 삶을 바꾸는 투명가방끈 단체 소개 4p

<대학입시거부선언> 활동 소개 및 연혁 5p

2017 나의 대학입시거부 (릴레이 기고글 모음) 6~7p

2017 대학입시거부 공동선언문 8~9p

[논평] 수능과 입시의 환상을 걷어내야 한다  
- 포항 지진 이후 수능 연기 사태에 대해 10~11p

## 투명가방끈 단체 소개

- '대학입시거부로 삶을 바꾸는 투명가방끈(이하 투명가방끈)'은 입시경쟁교육·학력학벌차별사회·대학중심주의 문화에 맞서, 교육과 사회를 바꾸기 위해 활동하는 사회운동 단체입니다.
- 투명가방끈은 2011년 대학거부선언, 대학입시거부선언을 계기로 결성되었습니다. 이후 2012년 <투명가방끈 콘서트>, 2014년 <'사회적 입시살인 중단을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 2015년 <우리는 대학을 거부한다> 책 발간, 2016년 <형식적 수능 진행 방해 "아무 말 대잔치"> 등 경쟁과 차별 중심의 교육과 사회를 바꾸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진행해왔습니다.
- 2017년에도 투명가방끈은 다양한 활동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학중심문화에 맞서기 위한 <투명가방끈 포스트잇 액션>, 차별과 경쟁에 지친 사람들과 함께 하기 위한 캠페인, 학력학벌차별을 포함한 모든 차별을 금지하기 위한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인권침해 교육을 바꾸기 위한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에 참여하여 함께 활동하고 있습니다.
- <2017 대학입시거부선언> 이후에도 투명가방끈의 활동은 이어집니다. 12월에는 대학을 가지 않거나 중퇴한 비청소년들의 경험을 모아 학력 학벌로 인한 차별 사례를 공론화하고자 합니다. 약 한 달 동안 모은 사례를 토대로 '학력학벌차별 사례조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또한 세계인권선언기념일 즈음에는 차별금지법제정을 위한 거리집회에도 함께 참여하여 학력학벌 차별금지를 포함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당신의 학력·학벌 차별 경험을 나눠주세요”  
우리의 삶, 충분히 존중받고 있나요?

# 학력학벌 차별 사례조사

- ✓ 대상 대학에 가지 않거나 중퇴한 비청소년 (비진학, 중퇴 등)
- ✓ 기간 2017년 11월 19일 일요일까지
- ✓ 참여 [josa.hiddenbag.net](http://josa.hiddenbag.net)

\*적어주신 사례는 익명으로 결과발표 자료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대학입시거부로 삶을 바꾸는 투명가방끈

## <대학입시거부선언> 활동소개 및 연혁

- ‘대학입시거부선언’은 2011년부터 올해까지 73명(△2011년 48명 △2013년 7명 △2014년 3명 △2015년 5명 △2017년 11명)이 동참하고 있는 불복종운동입니다. 모두를 무한경쟁으로 내모는 교육/사회 속에서 경쟁교육·서열화를 거부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함으로써 입시경쟁교육·학력학벌차별·대학중심주의의 문제를 말하며, 다양한 삶이 보장되고 존중받을 수 있도록 변화를 촉구하기 위한 운동입니다.
- 일부에서는 “이제 대학은 선택할 수 있다” 이야기하며 대학입시거부선언이 필요한지 묻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한국사회에서 대학을 가지 않는 것이 ‘대단한 결단’ 혹은 ‘포기’를 뜻하는 현실은 2017년에도 대학입시거부선언이 필요한 이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대학을 가지 않는 삶도, 가는 삶도 모두 존중받을 수 있는 사회를 위해 투명가방끈은 2017년에도 대학입시거부선언을 발표하고 변화를 요구합니다. 경쟁과 차별의 교육/사회가 변화할 때까지 우리의 저항은 멈추지 않습니다.

### [대학입시거부선언 연혁]

#### 2011 대학거부선언 “우리는 낙오자가 아니라 거부자입니다”

선언자: 30명 (강현, 경성수, 고다현, 공현, 그링, 김서린, 김삿갓, 김지훈, 김희영, 난다, 박고형준, 박유리, 박주희, 시원한 형, 아즈, 어쓰, 엠건, 윤테, 은총, 이나래, 이승환, 이정은, 이해인, 임준혁, 정도(김자니), 정한얼, 지혜, 채유리, 형우, 호야)

#### 2011 대학입시거부선언 “불안하고 불행한 우리의 오늘과 내일을 바꾸자”

선언자: 18명 (고예술 김민성 김재홍 김해솔 문동혁 민다영 박제헌 양현아 이찬우 이현지 임준혁 장주성 전경현 정열음 조만성 최경수 최난희 한소영)

#### 2013 대학입시거부선언 “오늘부터 우리는 투명가방끈이다”

선언자: 7명 (그름, 김새별, 도담, 박건진, 왈왈, 위영서, 츠베)

#### 2014 대학입시거부선언 “함께 행복해지기 위해 대학거부를 선언합니다”

선언자: 3명 (김예림(라일락), 함이로, 황채연(사카린))

#### 2015 대학입시거부선언 “우리를 거부하는 교육을 거부한다”

선언자: 5명 (김한률, 안혁, 양지혜, 윤쓰리, 한채림)

#### 2017 대학입시거부선언 “나를 위해, 모두를 위해 대학입시를 거부한다”

선언자: 11명 (나래, 박성우, 아고(혜민), 이글, 임혜민, 정다루, 정원석, 정유정, 정재현, 트리(이현민), 피아)

# 2017 나의 대학입시거부 - 선언자 개인 릴레이기고

<2017 대학입시거부선언>을 준비하며 공동선언문에는 미처 담지 못한, 대학입시거부 선언자 각자의 이야기와 고민을 담은 '2017 나의 대학입시거부' 릴레이 기고를 진행했습니다. 릴레이 기고는 글, 소설, 만화, 사진 등 다양한 방식으로 대학입시거부 선언자들의 목소리를 담아냈습니다.

분량 관계상 보도자료에는 핵심적인 문장 일부를 인용하였습니다. 전문은 투명가방끈 다음 카페 및 '청소년신문 요즘것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17 나의 대학입시거부' 릴레이 기고: <http://hiddenbag.net/UZ7N/8>

"생존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고, 운이 좋았더라도 결국 불행하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조건이 잘못됐다 말해야 한다. 변화를 바라는 사람이 모여 고민하고 얘기하고 다독이고 작은 목소리라도 내야 한다."

<나의 대학거부 이야기> 中 / 2017 대학입시거부선언자 - 나래

"지금 내가 받는 야유는 당연한 것이 아니다. 입시로 받는 고통 또한 당연한 것이 아니다. 대학도, 고등학교도 성공한 삶을 위해 당연히 나와야 하는 것도 아니며 성공하지 않는 삶도 훌륭한 개개인의 삶이 되어야한다."

<너는 왜 대학에 가?> 中 / 2017 대학입시거부선언자 - 임혜민

"내가 대학거부를 하는 이유는 모두에게 대학이 전부가 아니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대학은 수많은 선택지 중 하나일 뿐이다. 대학을 가지 않는다고 낙오자가 되거나 불이익을 당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무엇보다 대학을 준비하느라 지금 이 순간을 미래에 갖다 바칠 생각은 눈꼽만큼도 없다."

<대학을 가지 않아도 괜찮은 사회를 위해> 中 / 2017 대학입시거부선언자 - 아고

"대학의 이름은 어떠한 형식으로든 나를 대변해 줄 수 없다. 그래서 나는 나의 꿈과 삶을 위한 선택으로, 대학에 가는 길밖에 없다는 가르침을, 대학을 거부한다."

<대학, 대체 왜 가야하는 거야> 中 / 2017 대학입시거부선언자 - 박성우

"제가 원했던 교육은 스스로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제가 원했던 교육은 친구들을 깔아뭉개는 게 아닌 함께 성취하는 과정입니다."

---

<나를 조그맣게 초라하게 만드는 교육을 거부한다> 中 / 2017 대학입시거부선언자 - 정재현

---

"나는 더 열심히 해야 했을까? 그럼 어떻게든 살아남을 수 있을지도 몰랐다. 하지만 미래를 위해 지금의 나를 확대하는 건 아무 의미도 없는 일이었다. (...) 하지만 성공하지 않아도 괜찮아. 다른 길을 찾은 것만으로도 만족하니까.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낙오할 염려 없이 갈 수 있는 다른 길을 더 많이 만들고 싶어."

<다른 길> 中 / 2017 대학입시거부선언자 - 정다루

---

"나는 대학거부로 내 삶을 바꾸려고 한다. 이 무한경쟁과 희망 없는 세상의 희생양이자, 그 세상을 더욱 단단히 유지하는데 한 몫을 해 왔던 내 삶을 조금이나마 틀어 놓으려 한다. 그렇게 내가 누구인지, 내가 살고 싶은 삶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물음을 갖고 살아 보려고 한다."

<나는 대학을 거부한다 - 내 침대의 고틀머리에 서서> 中 / 2017 대학입시거부선언자 - 이글

---

"나 성적 안 되면 대학 안 갈 거다, 이 한마디 했다가 2시간 동안 설교 오지게 들었어. 대학 안 나오면 거리에서 쓰레기나 줍고 살 거라면서, 몸 팔고 살고 싶냐면서. 리얼 정신 개조 당하는 줄."

<지문 43> 中 / 2017 대학입시거부선언자 - 피아

---

"엄마는 대학을 나오지 않으셨다. (...) 대학을 나오지 못해 받은 차별들이 수도 없이 많아 힘들었다고 하셨다. 부모님의 마음은 이해 가지만, 이런 부당한 일들을 피하기 위해서 내가 대학을 가야 하나? 바뀌어야 할 것은 내가 아니라 교육 제도와 사회이지 않을까?"

<이제는 교육이 바뀌어야 한다> 中 / 2017 대학입시거부선언자 - 정유정

---

"여장을 꾸미고 / 신발끈 여미고 / 길을 걷는다 / 맑은 날이 좋고 / 비가 와도 좋다 / 산과 구름이 좋고 / 꽃과 바다가 좋다 (...) 어깨가 스치는 곳이 좋고 / 발자국이 드문 곳이 좋다 / 일상의 찰나가 좋고 / 시선이 머물지 않는 곳이 좋다 / 그렇게 거닐며 / 좋아하는 것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좋다 / 이렇게 좋은 게 많은데 / 그때는 왜 몰랐을까 / 나는 걸어야 하기에 학교를 그만둔다"

<2017 선언> 中 / 2017 대학입시거부선언자 - 정원석

---

## 2017 대학입시거부 공동선언문

# 나를 위해, 모두를 위해 대학입시거부를 선언한다

올해도 어김없이 수능이 찾아왔다. 모두가 대학을 위해 시험을 치르는 날, 우리는 우리의 목소리를 알리기 위해 이곳에 서 있다.

이 사회는 우리에게 스스로를 위한 삶과 권리를 유예하기를 강요하고 있다. 사회는 학생들로 하여금 대학에 가면 뭐든 할 수 있다고 말하며 입시로 인한 고통을 견디라 말한다. 학생들은 마땅히 누려야 할 실 권리, 놀 권리, 참여할 권리, 사생활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 등을 포기하고 유예하며, 심지어는 그 권리를 누리는 것을 죄악으로 여기기도 한다. 대학에 가지 않으면 불안하고 불행할 것이라는 말, 인생이 망한다는 말은 거짓이다. 그러나 여전히 사회적으로 통용되며 학생들을 짓누르는 협박으로 기능하고 있다. 우리는 이것이 엄연한 거짓말이라고 말하고자 한다. 이러한 고통은 당연한 것이 아니다. 견디는 것이 마땅한 고통, 포기해 마땅한 권리, 유예해 마땅한 시간은 없다. 우리는 대학을 위해, 미래를 위해 현재의 순간순간을 희생하기를 강요하는 입시를 거부한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갉아먹는 입시로부터 떠날 권리가 있다.

경쟁은 필연적으로 낙오자를 만든다. 경쟁 속에서 누군가 이긴다면 누군가는 반드시 패배하게 되어 있다. 경쟁에서 모두가 승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누구에게나 승리하라 가르치는 교육은 기만적이다. 지금의 교육은 경쟁에서 패배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우리는 경쟁을 거부하지 않는 교육을 거부한다. 우리는 경쟁하며 스스로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를 거부하고 서로를 보듬고 존중할 수 있는 교육을 원한다.

우리에게 다양한 가능성을 꿈꾸며 살아갈 권리가 있다. 소위 '정상적'이라는 삶의 궤도는 강요되어서는 안 되며, 모두에게 가능하지도 않다. 정상에서 벗어난 삶의 모습을 선택하더라도 안전할 수 있어야 한다. 대학입시를 거부한다는 우리의 외침은 거부에 따르는 모든 차별과 불안까지 감당하겠다는 이야기로 오독되어서는 안 된다. 사회는 개개인의 다양한 선택을 존중하고 불안하지 않도록 지원해야 한다. 선택에 따른 불안과 책임을 모두 개인에게 떠미는 사회는 무책임하다. 대학이 진정한 선택이 되려면 대학에 가거나 가지 않는 것이 삶의 안정과 불안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

우리의 결정은 자발적이기도 강제적이기도 하다. 결코 외적 요인을 무시한 개인적인 선택이라고만 말할 수 없다. 값비싼 등록금, 기업화되는 학교, 무시되는 학생인권 등은 이미 수많은 사람들을 학교 밖으로 떠밀고 있다. 우리는 우리를 거부하는 교육을 거부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학력·학벌차별이 엄연히 존재하는 현실에서 그것을 지속시키는 위치에 서기를 거부한다. 사람을 줄 세워 가치를 매기는, 그리하여 모두가 가해자이자 피해자가 되는 틀에서 벗어나고자 한다. 그 어떤 존재도 학력이나 학벌만으로 충분히 설명될 수 없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불안하고 불행하게 하는 이러한 차별을 거부하고 바꾸기 위해 행동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우리는 입시경쟁교육에 반대한다. 경쟁과 차별을 멈춰라.**

우리는 서로 순위를 매기고 비교하며 우월감, 절망감, 열등감을 느끼고 싶지 않다. 입시경쟁 때문에 쫓기듯 살아가거나 우리의 권리가 미래로 유예당하는 것을 거부한다. 우리는 평가와 줄 세우기에서 벗어나, 있는 그대로 존중받을 수 있는 교육과 사회를 원한다.

**둘째, 우리는 '교육권'을 제대로 보장받고 싶다.**

우리는 수능과 입시 위주의 공부가 아닌 교육을 원한다. 각종 인권침해를 정당화하며 인생의 한 시기를 건디는 것은 교육이 아니라 폭력이다. 우리는 단지 교육 받아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 교육의 주체로서 원하는 교육에 원하는 방식으로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우리는 우리의 의사와 무관하게 강요되는 획일적인 입시 위주의 교육을 거부하고, 진정한 교육권을 보장할 것을 요구한다.

**셋째, 우리는 대학이 진정한 '선택'이 되는 사회를 원한다.**

이 사회는 여전히 “그래도 대학은 나와야지.”라는 이야기가 통하는 사회다. 학력·학벌차별은 여전히, 대학 없는 미래는 불안한 것으로 여겨진다. 우리는 대학을 가느냐 마느냐와 무관하게 불안하지 않은 삶을 살 권리가 있다. ‘좋은 대학’을 나오지 않아도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 대학을 선택하는 이유가 미래에 대한 불안이 되어서는 안 된다. 대학은 원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교육의 공간이 되어야 한다.

**넷째, 우리는 대학이라는 선택과 무관하게 나 자신으로 존재한다.**

우리의 행복과 불행은 고작 대학을 가느냐 마느냐로 결정되지 않는다. 혹 우리가 불안하고 불행하다면 그것은 대학을 거부했기 때문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대학을 다닐 거라는 사회적 편견과 강요 때문일 것이다. 또, 대학의 이름은 결코 한 사람을 대변하지 않는다. 학력과 대학 이름만으로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다는 건 알팍한 믿음에 불과하다. 우리에게 차별과 편견을 거두고 관계 맺을 권리가 있다. 모든 존재는 있는 그대로 존중받을 수 있어야 한다.

**2017년 11월 23일**

**2017 대학입시거부 선언자 11인**

나래, 박성우, 아고(혜민), 이글, 임혜민, 정다루, 정원석, 정유정, 정재현, 트리(이현민), 피아

## [논평] 수능과 입시의 환상을 걷어내야 한다 - 포항 지진 이후 수능 연기 사태에 대해

지난 주, 예정되어 있던 대학수학능력시험 바로 전날에 경북 포항에서 큰 지진이 일어나 피해를 입으면서 수능 시험이 한 주 연기되었다. 그대로 충격과 불안과 위험 속에서 시험을 강행하지 않고, 시험장을 정비하고 조금이라도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수능을 연기하기로 정부가 결정한 것은 다행스럽다. 동시에 우리는 이번 지진에서 더 명백하게 드러난 문제들도 외면해선 안 될 것이다. 수능 직전에 일어난 지진과 그 이후 수능 연기가 결정된 과정, 그리고 이에 관해 사람들이 보인 반응은, 수능 시험으로 상징되는 입시교육의 문제점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 ‘공정한 시험’이라는 환상

지진 발생 직후, 큰 피해를 입은 포항 지역의 수험생들에게는 수능 시험을 강행하는 것이 ‘공정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그런데 그렇다면 다른 경우들은 어떠한가. 예컨대 수능 때 병에 걸리거나 갑자기 사고를 당한 수험생들은 ‘공정하게’ 시험을 치른 것인가. 그동안 우리 사회는 그런 경우를 개인적 불행 정도로 가벼이 여기거나 심지어는 자기 관리를 잘하지 못한 수험생 개인의 책임으로 떠넘기면서 수능 시험의 ‘공정성’이라는 환상을 지켜왔다. 그러나 이는 단지 규모의 문제일 뿐이었다. 이번 지진의 경우처럼 수험생 수천 명이 ‘불운한’ 상황에 처하자, 더 이상 이를 작은 일로 치부할 수 없게 되었던 것이다.

어쩌면 수능 시험을 비롯한 입시는 사회적 문제와 차별, 우연이 겹쳐있는 것을 개인의 노력, 개인의 사정인 양 보이도록 하는 기나긴 세뇌의 과정인지도 모른다. 우리는 애초에 수십만 명이 일제히 치르는 시험으로 사람들을 출세우고 교육에서 차별을 두는 것이 ‘공정하다’는 생각 자체가 잘못임을 직시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시험을 위해 수십만 수백만 명의 학생들을 시험 준비에 매진하게 하는 것은 불안정하고 불합리한 방식이기도 하다.

포항 지진 이후 수능 시험을 두고 일어난 일련의 혼란은, 시험과 그 결과를 가지고 개인의 진로와 인생, 교육권을 좌우하는 시스템이 잘못된 것임을 간접적으로 증명하는 것은 아닐까. ‘공정한 경쟁’, ‘객관적 평가’, ‘변별력’ 등 기존 입시경쟁체제의 전제를 버리고, 각자의 교육권을 실현하고 보장하기 위한 다른 관점의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 입시가 기르는 비인간성

수능 시험 연기가 결정되면서 수험생들 일각에서는 ‘포항 한 지역 때문에 전체 수험생들이

혼란을 겪고 피해를 입어야 하는가' 하는 불만이 나왔다. 이미 오래 전부터 결정되어 있던 시험 일정에 맞춰서 긴 시간 준비하고 컨디션 조절을 해왔기에, 갑작스러운 수능 시험 연기 결정에 당황하고 불편해하는 그 심정은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지진 피해라는 재난이 일어났는데도 자신들의 불편함을 먼저 생각하게 되는 세대는 씁쓸하다.

그러나 이는 수험생 개개인의 인격의 문제라기보다는 넓게는 입시경쟁과 차별, 좁게는 상대평가식 수능의 문제라고 봐야 한다. 과거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을 때도, 고등학교에서는 그런데 신경 쓰지 말고 공부나 열심히 하라고 한다거나, 경쟁자가 300명 줄어든 것이라고 말했다는 사례가 없지 않았다. 입시경쟁교육 속에서 사회적 문제에 관심을 갖거나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는 것은 '사치스러운 일'로 평가받았고, 학생들은 같은 세대의 동료 시민들을 경쟁자로 보도록 강요받아왔다.

이처럼 시험 결과와 출신 학교로 사람의 가치를 가르고 차별하는 사회에서, 입시교육은 생존과 성공을 위해 인간성을 훼손시키는 과정이다. 이런 반(反)교육적 교육이 길러낸 것이 지진 피해보다도 자신의 시험 컨디션과 불편함을 앞세우는 반응이고, 지진 피해를 입은 수험생들을 밟고 올라가야 할 경쟁자로 보는 태도이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토양이 최근 우리 사회에서 심각한 문제로 지적받고 있는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는 것임은 말할 것도 없다.

## 새로운 교육을 만들어야 한다

수능 시험은 눈에 보이는 뚜렷한 점수와 등수를 도출해 준다는 점에서 '공정한' 입시 제도인 것처럼 여겨져왔다. 그러나 이번 포항 지진을 거치면서 이러한 일제고사 방식의 입시가 가진 취약점이 분명하게 부각되었다. 수능 연기 결정에 피해를 입었다고 받아들이고 재난 피해자를 탓하는 일부의 모습은 경쟁교육이 인간을 피폐하게 만들고 단절시키는 폐단의 증거였다.

우리는 새로운 교육 체제를 지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그 기반부터 새롭게 골라야 할 것이다. 시험이 아니라 사람을 우선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공정한 경쟁'이나 '선발의 변별력'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과 교육권 보장이 교육의 출발점이자 목표가 되어야 한다. 몇 번의 시험 성적이 삶을 좌우하기에 시험 준비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 체제가 아니라, 수험생들을 줄 세우고 대학이 편의에 따라 선발하는 체제가 아니라, 더 많은 도전과 변화가 용인되고 사람들의 다양한 선택이 존중받는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

지진은 우연한 재해이지만, 지진으로 인해 우리 사회와 교육 체제는 그 필연적인 문제점을 드러냈다. 이제 우리는 그 문제점을 외면하지 말고 해결해야 할 것이다.

2017년 11월 22일  
대학입시거부로 삶을 바꾸는 투명가방꾼